



스위스 최고의 호텔 테라스.

풍경 한 아름 쏟아지는 테라스에서의 여유
스키나 하이킹으로만 찾아갈 수 있는 산장 레스토랑
제철 재료와 지역 특산물로 정성껏 만든 요리 먹고
찬란한 햇살 쏟아지는 테라스에 앉아
알프스가 빚어낸 화려한 풍경 바라보고 있노라면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 이것이 바로 신선놀음

스위스가 선사하는 대단한 풍경을 한 아름 선사하는 테라스에 앉아 쉬어가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간은 오랫동안 스위스를 추억하게 해준다. 스위스 산세가 만들어 내는 환상적인 알프스 파노라마는 덤이다. 겨울 왕국 다운 뷰 한복판에 마련된 테라스를 갖춘 호텔을 소개한다.

1. 더 옴니아(The Omnia)****, 체르마트(Zermatt)

남향으로 한가득 내려 앉은 오후 햇살이 기분 좋은 테라스에 앉으면 마테호른(Matterhorn)이 안녕 인사를 건넨다. 주방에서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공들여 맛을 낸다. 이그제큐티브 셰프 토니 루돌프(Tony Rudolph)는 예술의 경지를 발휘한다. 제철 재료와 알프스 정통성을 버무려 소박하면서도 현대적인, 풍성한 맛을 창조해 낸다.

2. 리기 쿨름-호텔(Rigi Kulm-Hotel), 리기(Rigi)

리기 정상에 있는 리기 쿨름 호텔의 테라스에서는 중앙 스위스의 화려한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리기 정상에 펼쳐진 이 풍경 속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 테라스에서는 제철 요리와 지역 특식으로 구성된 단품 메뉴를 서빙한다. 셀프서비스 레스토랑에서 간단한 메뉴나 풍성한 런치, 스낵을 즐길 수도 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리기 여정 전체가 무료다.

3. 쉐 브로니(Chez Vrony), 체르마트(Zermatt)

스키 슬로프에 바로 닿아 있어, 겨울에는 스키로만 찾아갈 수 있는 산장 레스토랑이다. 미술랭의 빙구르망을 수년째 획득하고 있는 레스토랑이기도 하다. 스키를 타다가 점심을 먹거나 허기를 달래기 위해 모여든 각국의 사람들에게서 들뜬 표정을 찾아볼 수 있다. 화려한 마테호른의 뷰와 아늑한 분위기 햇살 찬란한 목조 테라스가 정겹다. 쉐 브로니 전용 목장에서 짠 우유로 만든 치즈의 풍미가 남다르다.

4. 호텔 필라투스-쿨름(Hotel Pilatus-Kulm)***s, 크리엔스(Kriens)

필라투스 정상에 있는 필라투스 쿨름 호텔에는 1000m² 이상 되는 테라스 및 파노라마 갤러리가 있다. 파노라마 갤러리에서는 주변 알프스와 루체른 호수, 루체른 시내가 빚어내는 스틸 넘치는 뷰를 감상할 수 있는데, 날씨가 조금 거칠어져도 걱정 없다. 1890년에 지어진 건물은 2010년에 우아하게 보수되어 정상의 기품을 더한다.

5. 3100 쿨름호텔 고르너그라트(Kulmhotel Gornergrat)***, 체르마트(Zermatt)

4천 미터 급 봉우리 29개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고르너그라트 정상에도 햇살 찬란한 테라스가 있다. 테라스 건너편으로 마테호른이 그 어디보다 가깝게 모습을 드러낸다. 맛있는 음식이나 따뜻한 음료, 시원한 맥주를 테이블에 앉아 즐길 수 있다. 지상의 세계와 완전히 동떨어진 기분에 사로잡히는 풍경이다. 최근에는 한국 여행자들에게 컵라면을 무료로 증정하는 쿠폰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알프스이라면 냄새가 솔솔 퍼지곤 한다.



6. 프루트 롯지 & 스파(frutt Lodge & Spa)****S, 멜흐제-프루트(Melchsee-Frutt)

파노라마 테라스에 앉으면 인터네셔널한 메뉴 혹은 지역 명물로 만든 요리가 서빙된다. 시골스러운 테이블 옆으로 선 라운지도 마련되어 있어 안락하게 선탄을 즐길 수 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부터 스노우슈, 얼음낚시, 다운힐 스키까지 멜흐제 고원 지대는 차량이 금지된 겨울 스포츠 리조트로, 고요와 평온을 찾으면서도 외딴 산장에 고립되기는 싫은 여행자에게 완벽한 마을이고, 그 다운 풍경이 사방을 뻗어나 있다. 중앙 스위스의 알프스와 호수에 둘러싸인 마을은 해발고도 2,000m 에 있다. 햇살 가득한 겨울 하이킹 트레일이 갖춰져 있고, 두 개의 스키장이 있다.

7. 스위스 롯지, 로맨틱 호텔 무오타스 무라이(Romantik Hotel Muottas Muragl), 사메단(Samedan)

스위스 동부의 알프스 파노라마가 장애물 하나 없이 펼쳐지는 그 한복판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스카틀라(Scatla) 레스토랑의 아늑한 라운지에서는 호사스러운 알프스 정찬을 즐길 수 있다. 생모리츠(St. Moritz)가 아래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로맨틱 호텔 무오타스 무라이는 사메단과 폰트레지나(Pontresina) 사이 절묘한 전망 포인트에 위치해 있다. 1907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빈티지 퓨니쿨러를 타고 오르는 재미도 있다.

8. 베르그하우스 디아볼레짜(Berghaus Diavolezza), 폰트레지나(Pontresina)

베르니나 특급(Bernina Express)가 지나는 마을, 폰트레지나에는 디아볼레짜라는 산이 있다. 알프스 한복판에서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으로, 스키장에 있는 산장 레스토랑, 베르그하우스 디아볼레짜에서 맛있는 요리를 실컷 먹고 테라스에 마련된 선베드에 기대어 찬란한 햇살을 쬐고 있노라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충전되어 오는 에너지가 꿈틀댄다. 샴페인 한 잔을 주문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쿠지에 들어가 신선놀음을 해봐도 좋다.

9. 베르그가슈트하우스 보트(Berggasthaus Bort), 그린델발트(Grindelwald)

맛있는 음식과 화려한 뷰를 그린델발트의 베르그가슈트하우스 보트의 햇살 좋은 테라스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스키를 타다가 점심을 먹기 좋은 완벽한 장소에 있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